

고흥 풍류·보성 영천마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가꾼다

내년 10억 투입 농촌융복합산업 성공모델 구축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공동시설·장비 확보

고흥 풍류마을과 보성 영천마을이 전남을 대표하는 유기농 생태마을로 조성된다.

전남도는 27일 "고흥 풍류마을과 보성 영천마을을 '2022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총 10억 원을 지원, 전남을 대표하는 유기농 농촌융복합산업의 성공모델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농업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유기농업 마을 성공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고흥 두원면 풍류마을과 보성 회천면 영천마을은 2022년 사업을 통해 유기농업을 확대하고 유기농 융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마을 공동시설·장비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풍류마을은 35ha가 넘는 유기농 벼 재배단지 집적화한 풍류단지 중심으로 공동 육묘장, 광역방제기 등 공동 생산 시설을 확대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규모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 증진을 꾀할 계획이다.

영천마을은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 계단식 차밭과 생물

다양성 등의 보존가치를 인정받은 마을이다. 2022년 마을 공동 녹차가공 및 체험·판매시설, 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매년 정명차 만들기 행사, 소박한 차 꽃축제 등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마을 인근에 영천저수지, 판소리 성지 등 볼거리가 많아 유기농 녹차를 소재로 마을을 친환경 농촌문화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유기농 생태마을을 활성화는 탄소중립·친환경 농업경제로 전환, 농업·농촌 경쟁력 확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경제구조 정립을 위해 절실하다"며 "전남도는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대하고 농민 삶의 질을 개선해 행복지수를 높인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NH농협캐피탈은 최근 농협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광산구에 취약계층과 방역요진을 위한 농산물 꾸러미 1천500세트를 기탁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제공>

창립 60주년 기념 농산물 꾸러미 나눔

농협 광주본부 등, 광산구에 9천만원 상당 물품 후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 NH농협캐피탈이 최근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광산구청에서 취약계층과 방역요진을 위해 농산물 꾸러미 1천500세트(9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양숙 복지정책과장, 강영구 농협중앙회 광

주지역본부장, 김석찬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박태선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 이한상 구세군 전라지방장관, 남미정 NH농협은행 광산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NH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실시된 이날 행사의 후원 물품은 전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12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지역아동센터와 선별진료소 방역요진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석찬 영업본부장은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을 통해 농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보람된다"며 "농협금융의 선한 영향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김안석 한국새농민회장, 자랑스러운 전남인 선정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 앞장 공로



총 6개 분야로 나눠 선정, 도민의 날에 시상하고 있다.

김안석 회장은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 정신으로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 등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 본부장은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 회장의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 발전에 앞장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새농민중앙회는 새농민의 자주적 협동체로 새농민 운동의 확산·농업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기여를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선발 육성하는 단체다. /변은진기자

어촌 직거래망 '바이씨' 비대면 요리대회

도, 내달 5일까지 수산물 활용 요리 영상 공모

전남도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전남의 우수 어촌계들이 참여해 도시민과 직거래하는 '바이씨(www.buyssea.co.kr)'에서 수산물 구입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요리대회 '바이씨와 함께라면 나도 요리사'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5일까지 요리 영상을 접수해 위생, 작품 완성도, 전남 수산물 홍보, 창의성 등을 심사, 우수작을 낸 17명에게 540만원 상당의 바이씨 적립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요리대회는 바이씨에 등록된 25개 어촌계의 전복, 문어, 키조개, 돔, 미역, 다시마, 꼬시래기 등 수산물과 주문자상표제작

(OEM) 제품인 전복·조개 분말, 마을미역 등을 소비자들이 구입한 뒤 2-5분 이내 영상 제작해 응모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요리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이씨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접수 기간 내 바이씨에서 수산물을 구입해야 한다.

또 택배 도착 후 상품을 개봉하는 장면, 가족 등과 시식하는 장면 등을 영상에 포함하고 본인 소유 SNS 계정에 영상 업로드·해시태그 설정을 해야 한다.

제출된 영상에 대해서는 (사)한국조리사협회 광주전남지회, 요리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 대상 1명 100만원, 최우수상 2명 50만원, 우수상 10명

30만원, 특별상 4명 10만원 등을 바이씨 적립금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전남 어촌에서 생산되고 있는 질 높고 건강한 수산물을 도시민에게 직접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어촌직거래망 바이씨의 취지"라며 "요리대회를 계기로 전남 수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향상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촌 직거래 통합 사이트 '바이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소포장이 가능하거나 직거래를 바라는 전남 우수 어촌을 등록시켜 전국 최초로 운영에 들어갔다. 소포장이 어려운 어촌계의 경우 협력업체를 거쳐 소비자들이 선호한 형태로 포장·배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어촌의 6차 산업화를 이끌어 어촌 삶의 질 증진, 어민 소득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차나무 시설재배 스마트팜 적용 수량 55% ↑

도농기원, 주산지 겨울철 동해·서리피해 예방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7일 "매년 반복되는 겨울철 동해와 서리 피해, 4-5월 초봄 첫물차 수확 시기에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나무 스마트팜 시설재배'에 알맞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매년 보성, 장흥을 비롯한 전남 차 주산지에서는 겨울철 동상해와 저온 피해로

첫물차 수확 시기 지연과 함께 찾았 수량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보성지역의 경우 1월 상순 기온이 영하 18.1℃까지 떨어지는 한파로 인해 전체 재배면적 755ha 중 33.5%인 253ha가 피해를 입어 첫물차 수량이 10년 평균 대비 6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농업기술원은 겨울철 동상해와 저온 등 기상 재해를 항구적으로 회피하고 고품질 차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적용한 차나무 시설재배 내부시설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시설 형태는 1층 비닐하우스 내부에 50% 차광·관수 시설과 전남 농기원에서 자체 개발한 단동 단순 보급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이 시설을 이용해 노지재배와 찾았 수량을 비교한 결과, 연구 개발 스마트팜 적용 시설에서 수량이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정기자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산림자원 산업화 속도

담양죽순영농조합 등과 연구 성과물 상품화 협약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대나무 가공품 연구 성과를 포함한 지역 비교우위 산림자원의 산업화·수출 상품화를 위한 연구 개발·마케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 ㈜씨제이더블유코스메틱, ㈜베가베리와 산림자원 산

업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단순 협업을 넘어 다양한 산림자원 소재의 연구 개발 성과를 활용한 제품화·수출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발굴·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대나무를 포함한 산림자원 소재 발굴, 탐색 등 연구 관련

정보교류·공동연구 ▲산림자원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제품 산업화 ▲개발 제품 내수·수출 통한 전남 산림자원의 가치 확산 등이다.

담양죽순영농조합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산림청 연구개발(R&D) 과제인 '국산 대나무 최적 가공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죽순을 함유한 프로틴(단백질) 떡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씨제이더블유코스메틱, ㈜베가베리와 마케팅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나만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자동체형 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L프레임 | 전신 에어안마 | 어깨 간격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릴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또 다른 초월의 탄생

나만의 힐링 체어

주요기능: 3D 입체 안마 | 울트라톤 모듈 | 하이퍼 S&L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중력기능 | 온열기능 | 뮤직플레이기능 | 무중력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러 더 섬세해진 오베론+

나만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3단무중력 | L&S프레임 | 세이빙스페이스 | 자동체형인식 | 7가지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백마사지 | 다리길이조절 | 발바닥롤링 | 블루투스연결 | 종아리마사지 | 3D마사지 | 허리온열기능 | 슬라이딩방식 | 지퍼패시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나만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스마트한 마사지를 인체공학적으로 프레임 | 온열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중력기능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